

人生 哲學者 「딜타이」

그의 生誕 百週年을 보내면서(二)

田元培

그러므로 어떤 學者는 딜타이 哲學이 딜타이와 요-크伯爵과의 友誼속에서 發露한 精神的 產物이라고 한다.

딜타이가 요-크伯爵과 知己之間이 되기는 딜타이가 **부레스라우**大學의 哲學教授로 赴任하여, 부레스라우에 滞在하든 時期 卽 一八七一年으로부터 一八八二年에 이르는 동안이 었다.

딜타이는 무슨 著書나 論文을 發表할제마다 반듯이 一部를 요-크伯爵에게 보내어서 그것에 對한 요-크伯爵의 論評을 듣기를 願하였고 또 이 世上 누구의 批評보다도 요-크伯爵의 稱讚을 기뻐 하였다.

그러므로 요-크伯爵과 딜타이와의 사이에 交換된 書簡集은 딜타이哲學思想發展의 理解에 對하여 무엇보다도 貴重한 文獻이되어있는 것이다.

나는 딜타이와 요-크伯爵과의 友誼가 얼마나 깊었든 것인가를 張皇하게 說明하느니보다 차라리 一八九七年 九月十八日 卽 요-크伯爵이 作故한 後에 그의 아들이오, 또 딜타이의 젊은 친구인 하인리히·요크伯爵에게 보낸 딜타이의 書簡의 一節을 紹介하는것이 適當할줄로 생각한다.

『나는 무어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나는 二十五年동안이나 자네 아버지와 모든 理念을 體驗하는 동모가 되었섯네. 자네 아버지는 □·홀츠를 除하고는 내가 만나본 사람들中에 第一 天才的 氣質을 가진 어른이 었네. 그리고 人格의 高尚한 點에 있어 서는 누구도 그에게 當할이가 없었네. 나는 인제는 哲學에 對하여 興味를 가치 느낄 동모를 永遠히 잃었네. 내가 아무리 卓越한 價値를 가진 著書를 發表한대도 다시는 그것에 對하여 稱讚하여 줄 이도 批評하여 줄이도 없에 나는 깊은 暗黑속에 빠진 것과 같은 悲哀를 느끼고 있네.』

딜타이는 日常生活에 있어서 비록 孤獨과 寂寞을 사랑하고 人世間的 煩累를 避하였을지라도 요-크伯爵과는 上揭한 書簡을 보드래도 稀有한 友情을

맺었던 것을 可히 알수가 있다. 우리는 딜타이哲學의 基本이 되어 있는 了解한 概念이 이와 같은 딜타이와 요-크伯爵과의 生命的 符合속에서 展開된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딜타이의 著書는 『슈라이엘막헬의 生涯』(一八七〇年), 『精神科學序說』(一八八二年), 『體驗과詩』(一九〇五年), 『헤-겔의 靑年時代』(一九〇五年), 『體系的哲學』(一九〇七年), 『精神科學에 있어 서의 歷史的 世界的 構造』(一九一〇年), 『世界觀과 人間의 分析』(一九二二年)等이며, 딜타이의 思想은 非但哲學上에만 局限된것이 아니라 文學과 歷史 等 多方面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딜타이의 全 思想體系를 詳述할 餘裕가 없으므로 다만 그의 哲學思想의 主要契機만 拙出하여 簡單히 紹介하고자한다.